

나주, 호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거점으로 도약

21억7000만원 투입...혁신센터·서남권 허브센터 운영 국·도비 14억4000만원 확보...개발콘텐츠 사업화 지원

나주시가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전남을 넘어 광주와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거점으로 도약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6년 가상융합산업(XR·AI·디지털트윈 등) 육성을 위해 '전남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7억9000만원)'와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13억8000만원)'에 총 2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도비 14억4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나주가 호남권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전남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는 총사업비 7억9000만원 규모(국·도비 5억6000만원)로 나주시의 전력 산업과 가상융합기술을 결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는 '전기에너지융복합아트'와 '스마트 산업안전' 분야의 콘텐츠 제

작을 집중 지원해 에너지 수도 나주의 산업 브랜드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는 총사업비 13억8000만원(국비 6억80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5억원) 규모로 전남과 광주, 전북 지역 기업이 개발한 콘텐츠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화 전문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 내 구축된 첨단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콘텐츠의 완성도를 실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적 보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개발을 넘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

출까지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4월 중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장비 대여와 제작비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산업 육성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가상융합 콘텐츠 실증 장소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거점에 시민 체험형 가상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넘어 실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상융합체험존(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층)에서 시민들이 AR(증강현실) 콘텐츠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지역 기업의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며 "기업이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



매화꽃과 조화 이룬 '비밀의 정원' 광양시립도서관이 광양매화축제와 연계해 운영 중인 팝업도서관 '비밀의 정원'이 관광객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책과 휴식을 결합한 독서 공간으로, 방문객들이 반백과 캠핑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포토존에서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광양시

담양, 공중케이블 정비로 보행안전 확보

20억대 공모사업 선정...도시 미관·보행 안전 ↑

담양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주관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미만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담양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군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전국 정비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그중 담양군은 약 20억원 상당의 정비 물량을 배정받았다. 정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전력과 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해 집행하며, 군은 행정 지원과 구역 설정을 맡

는다. 정비 구역은 담양읍 담양시장 일원과 대전면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군은 기존 도심 기반 시설 개선과 공중케이블 정비를 전략적으로 연계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10% 할인 받으세요"

내달 23일까지 사전 판매...온·오프라인 구매 가능

함평군이 지역 대표 봄축제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입장권 사전예매에 돌입,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사전예매가 4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함평나비대축제는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을 주제로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입장권은 사전예매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는 '티켓링크'와 '네이버'에서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예매는 16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 3층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입장권을 사전예매할 경우 현장 판매가

격보다 10% 할인된 △어른 6300원 △청소년 4500원 △어린이·노인·유치원생 27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 단체 구매 시에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어른과 청소년 입장권에는 각각 2000원과 1000원 상당의 쿠폰이 제공되며 축제내 부스와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 당일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알리는 함평을 대표하는 축제"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아 나비와 자연이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윤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목포,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 공백 없앤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목포시가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도, 무안군과 함께 서부권에서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 이를 위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참여기관 확보 등 운영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실제 목포시 내 소아 진료기관은 7개소에 불과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제한적으로 진료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 부족과 야간 근무 인력 수급의 어려움, 운영비 부담, 낮은 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운영지침 개선을 비롯해 인력 확보, 운영비 지원, 운영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특히 전남도와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정적인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인근 시·군과의 연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



목포시는 지역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시

관과 협력해 목포·무안 지역 간 연합 운영과 운영시간 탄력 조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광미 목포시 보건위생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서부권 소아 진료 공

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화순, 내달부터 청년센터 연계 '청춘오름' 운영

취업 지원 등 강화

화순군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청춘오름'을 4월부터 운영한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15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창업 지원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탐방, 부모 교육, 맞춤형 상담, 청년정책 안내 및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운영을 맡아 추진되며,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추진되는 청년 지원사업이다. 특히 올

해는 운영기관이 화순군 청년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면서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청년센터 공간과 기존 청년정책 인프라를 활용해 상담, 취업 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합 운영하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센터를 이용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기초 상담을 시작으로 참여 청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준비 상황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청년 고용정책 안내와 취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화순=규영규 기자

곡성,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난방 지원 확대

단열 보강·창호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곡성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을 높이는 시공과 여름

철 폭염에 대비한 에어컨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냉방 지원 분야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에어컨이 없거나 노후화된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 1대를 설치해 폭염에 취약한 가구의 여름철 냉방

환경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난방 지원 분야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벽체·천장 단열공사, 노후 창호 교체, 바닥공사·배관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공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약 243만원 수준이며 최대 330만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도 지자체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군은 신청 가구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너지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아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